

국민건강증진법 선포와 그 의의

-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의 강화 -



박형종

인제대학교 부총장 · 대한보건협회장

정부는 19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공포하였다. (법률 제4914호)

그리고 1995년 9월 1일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4757호)을 1995년 9월 11일에는 동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보건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보건 의료행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극히 환영하고 있는 바이다.

1. 건강증진사업을 제창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

전통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하여는 예방, 치료, 재활 그리고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이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의학의 괄목할만한 발전은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면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발전을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추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는 동안 우리들의 건강 또는 질병에 관여하는 주변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보건 의료의 내용과 접근방법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나간 2~3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식생활은 크게 향상되었다.

여기에는 날로 발전하는 의학 및 의료기술의 향상에 힘입어 국민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 과거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던 급성 전염성 질환은 감소하였으며 이 대신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질병의 만성화, 성인병 같은 난치병의 증가 등이 치료위주의 현 의료제도에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3) 사회발전에 따른 생활양식, 식생활 및 생활환경의 변화는 각종 질환발생의 새로운 원인 요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4) 근래의 우리나라의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은 각종 질환을 유발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5)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생활여건의 향상에 따라 급격하게 높아가고 있다.

또 이에 더하여 1988년부터의 전국 의료보험의 실시로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6) 위에 말한 질병유발요인의 다양화는 그 해결에 있어서 보건의료계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타 전문분야와의 협력과 참여를 요구하게 된다.

2 주변 변화에 대응하는 건강증진

지금까지의 의료중심의 소극적인 접근방식만을 가지고 서는 다음 세대에 예기되는 보건의료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세계의 일부 나라에서는 1970년 후 반부터 서서히 나름대로의 건강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들을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건강증진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강조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시도되었으며 1980년 후반에 이르러서 범 세계적인 활동으로 번지게 되었다.

1984년에 세계보건기구의 유럽지역사무처에서 처음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WHO 본부의 지원하여 시작이 되었다.

1984년 7월에는 건강증진에 관한 실무

회의가 WHO 제네바 본부에 모여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과 원칙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985년 5월에는 WHO 주관하에 건강 증진에 관한 실무회의가 코펜하겐 WHO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① 건강증진에 대한 통일화 된 개념 정립 ② 이미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한 각국의 경험 교환 ③ 건강증 진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86년 11월에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제1차 건강증진에 관한 세계대회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는 소위 “건강증진에 관한 오타와(Ottawa)헌장”이 채택되었다.

이에 뒤이어 1988년 4월에 호주의 아델레이드에서 제2차 대회가, 1989년 10월에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건강증진”이라는 주제하에 실무회의가 세계보건기구 제네바본부에서, 그리고 1991년 6월에는 스웨덴의 선스발(Sundsvall)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제3차 세계대회가 소집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모임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크다.

앞서 말한 일련의 국제적 노력의 결과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 건강관리능력 배양

건강증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돋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2) 환경조성의 개선

건강증진에는 그 실천을 도울 수 있는 바람직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건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건강한 삶을 갖는 데에 긍정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건강을 해치는 각종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3) 지역사회 활동 강화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가 요구된다.

건강증진의 전략을 실천하고 건강을 항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4) 공중보건정책 수립

건강증진을 위하여서는 건강을 지원하는 전면한 공공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모든 분야의 공공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5) 의료서비스 개발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에 재조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치료위주의 제도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을 강조하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인력의 교육과 훈련에 건강증진을 포함하여 다른 전문분야와의 협력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3.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실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보건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예방보건사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예방과 치료와 건강증진이 균형있는 발전을 함으로써 국민보건항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① 종전의 치료편중의 보건의료사업



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이 강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보건사업이 될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의 역할증대로 인하여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③ 국민의 보건의식이 개발되고 자조능력이 배양되어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보건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④ 흡연, 음주를 포함하는 생활양식,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이 함양될 것이며 따라서 질병의 감소와 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